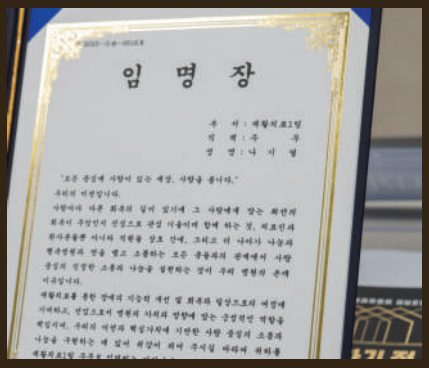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34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5.02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비전 2025, 함께 이루는 여정

2025 OKR 발표회

(02.18~20)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3일간 재활의료, 경영지원, 통합의료
OKR 발표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처음 OKR을 도입하고 세팅하면서
약 2년간 많은 성장속에서
흐름을 만들어갔고,
3년간 실행을 통해 쉽지 않았지만 연결하며
그렇게 올해 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상당한 애씀의 결과로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관심가지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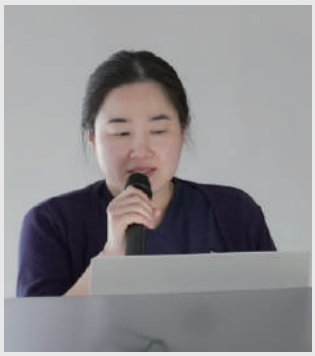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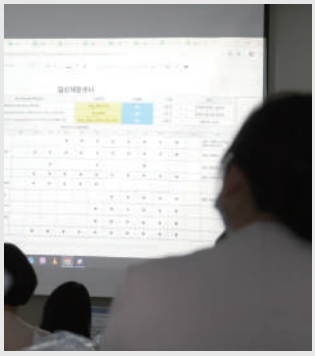
2025년, 5년째인 올해는
OKR을 완성하는 한해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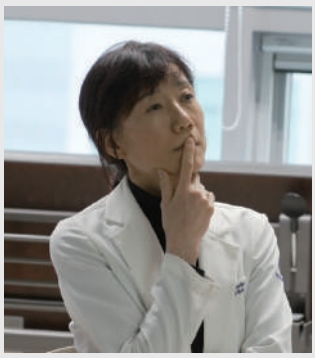
올해의 핵심단어는
“소통과 효율성”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여전히 지켜야 할 그 속에서
팀내, 팀간의 소통과 효율성을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병원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길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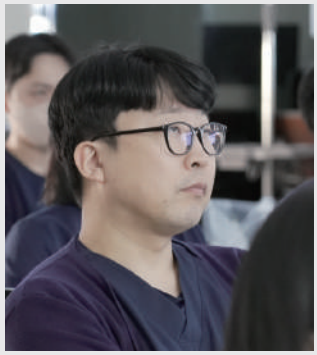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5년 승진자 타운홀미팅 (02.25)

지난 2월 25일, 흐뭇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025 승진자타운홀미팅!
승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만큼 뿌듯한 마음, 축하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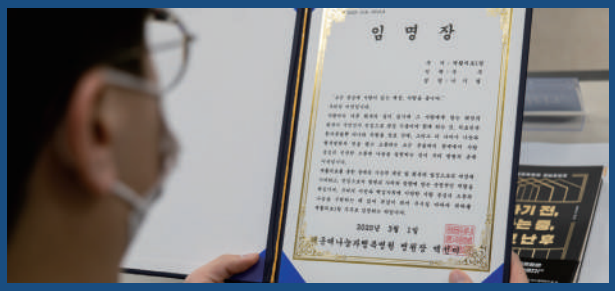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백선미 병원장님의 축하인사말씀으로 시작해서 임명장수여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진행되었는데요~ 모두 18명의 주무승진자들은 3팀으로 나누고, 서로 짝꿍도 정했다는데요. 전래동화팀에 콩쥐-팥쥐, 성춘향-이몽룡, 심봉사-뺑덤어멈으로 짝꿍이 정해졌고 헐리우드팀에 베트맨과 조커, 피오나와 슈렉, 로미오와 줄리엣이 짝궁이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톱스타팀에는 장동건-고소영, 박미선-이봉원, 영희-철수가 정해졌다는데 장동건은 누가 뽑았을지 궁금하시죠? 주무승진 짝꿍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든든한 동료가 될 것 같습니다.



18명의 주무승진자들은 해나행의 직책자가 된만큼 각자 생각하는 핵심가치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문장완성하기'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나행이 주는 즐거움과 가장 비슷한 즐거움을 주는 예능프로그램은 OOO이다'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은 [무한도전]이었다고 하네요. 멤버들이 함께 늘 도전하는 모습으로 즐거움을 주는 면에서도 비슷하고, 해나행에 와서 무한도전처럼 끊임없이 즐겁게 도전할 수 있어서 비슷하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주무는 각 팀에서 일선의 업무는 물론이고 행정업무의 실무책임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팀내에서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하고 팀원들을 코칭하는 역할, 나아가서는 타부서의 협업도 추진하게 되지요.
해나행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밑거름으로 팀에서 보다 무거운 책임을 맡게되실 분들입니다.



2025년 주무승진자들이 모두 해나행의 든든한 나무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하와 응원을 격하게 보내주세요~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휠체어스쿨 (02.17)

휠체어를 타고 보호자와 밖으로 나갔을 때 보호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음식점을 갔을 때를 가정하여 계단의 개수에 따라서 휠체어를 어떻게 밀지를 해보았습니다.

경사를 내려올 때 휠라이가 잘되시는 분들은 내려올 때 휠라이로 잘 안되시는 분들은 보호자가 뒤에 보조를 해주시면서 내려왔습니다.

밖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할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도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2.03)

참여자분들과 함께 스포츠체험을 하기 위해 한마음스포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배드민턴을 할 때 필요한 휠체어로 트랜스퍼 하고 라켓을 잡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체험하였습니다. 겨울이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점과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이용하기에 좋았습니다.

체험시간이 끝나고 병원 복귀를 하는데 참여자분들께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다고 하셔서 퇴원이후에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2.14)



낮병동이 입원과 구별된 점 중 하나는 작은 사회에서 자립해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해보는 경험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이번달 출석왕에는 한○수, 박○수 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류○태, 박○진 님이 수상하셨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축하와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MC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20대 꿀꺽왕 시상식 (02.07)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합니다. 또한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20대 꿀꺽왕은 김○식 님이 선정되어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알아갈 참여자분과 시상식을 통해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02.08)

매월 첫 번째 토요일,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이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십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를 배우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3월 8일(토) 오후 3시 30분, 7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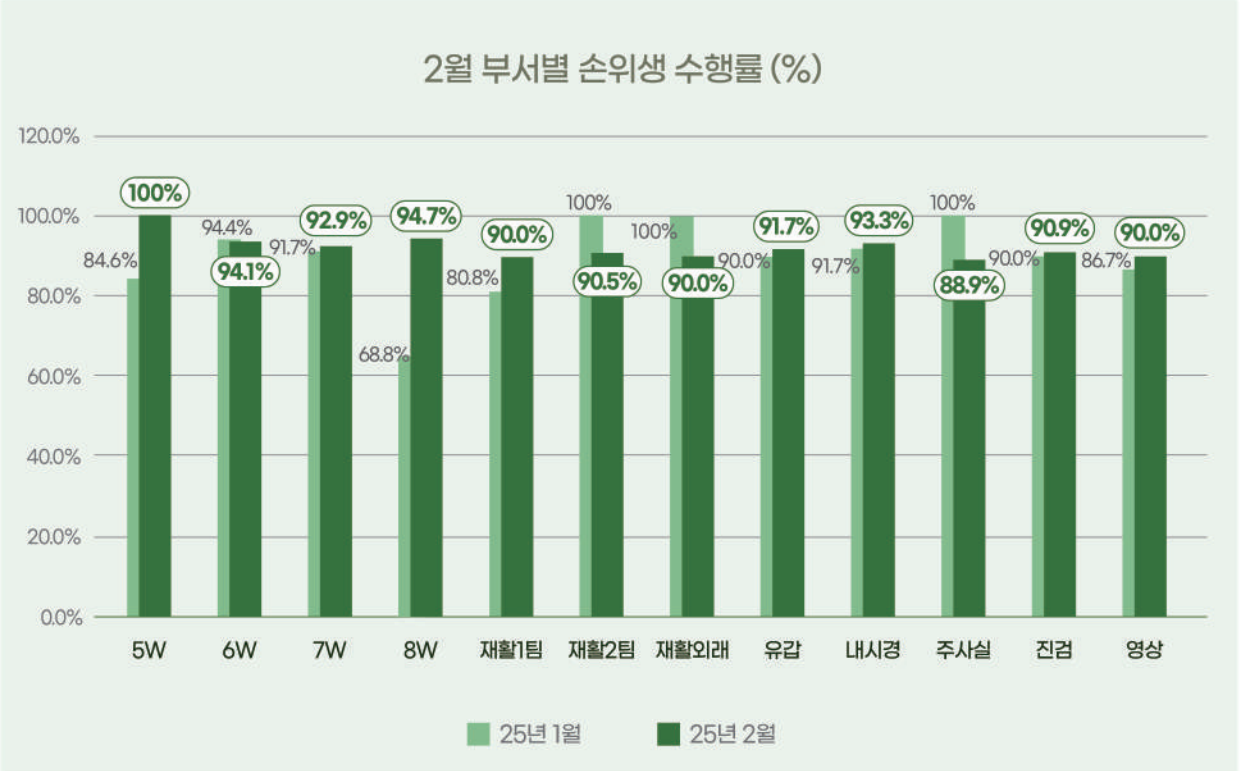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5년 02월 01일 ~ 2025년 02월 28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5년 1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80	166	92.2%	**+3.4%**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사회복귀지원이야기 열 세 번째 이야기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전환홈에서 찾은 마지막 희망

근무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어김없이 사무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려요. 전환홈에 가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라는 문의 전화였습니다.

전환홈을 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외부 신청자를 받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만큼 중도 척수장애인에게 우리의 사업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을 확인 후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사무처장님, 재활코치팀, 전환코치 팀장님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환코치 팀장님이 참여자뿐 아니라 주 보호자인 모친과 수차례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님의 사고 경위와 건강상태, 가족지지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현재 김○○님은 전환홈에 바로 입소하기보다는 먼저 재활을 통해 트랜스퍼, 신변관리 등의 훈련을 받은 뒤 입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자와 보호자 모두 동의하였고, 2주 후 본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리는 미래, 새로운 도전을 향해

김○○님은 본원에 입원한 후 척수장애인의 생활과 복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사회사업팀을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님은 대학생으로 사고 이후 휴학 중이었으며, 복학과 취업을 포함한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전환홈을 통해 복학에 성공한 다른 참여자의 사례를 들려주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첼로를 전공하는 김○○님은 하반신마비로 인해 첼로를 두 다리로 고정하여 연주하기 어려워 다른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척수장애인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 재택근무,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식개선 강사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며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김○○님은 가족들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여 대구시 LH를 통해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족사항과 가족 간의 관계, 지지체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재활코치팀과 협력하여 '척수이야기', '뉴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다른 척수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안내하고, 학교 복학뿐만 아니라 진로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지원했습니다.

김○○님이 독립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담하며 함께 노력한 결과, 여러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

전환홈에서 시작된 변화, 함께 만들어가는 자립의 길

약 3개월 동안 본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트랜스퍼와 신변처리 기술 등을 익힌 김○○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전환홈 입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참여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후, 독립적인 생활은 아직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와 함께 전환홈에서 생활하면서 보호자 교육도 병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환홈 입소 후, 김○○님은 자택 복귀를 계획하고 있어 퇴원상담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던 김○○님은 2학기(9월)부터 복학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복학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과 가능성, 기숙사 생활 여부, 장애인학생지원센터를 통해 강의실과 시설, 장학지원, 근로지원인 등의 사항을 파악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복학 외에도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에, '대구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안내하여 퇴원 후 복학 전 약 6개월 동안 적성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김○○님은 첼로를 스스로 잡고 연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방향을 고려하며 진취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 colspan="6"><table><tr><th>성별</th><th>나이</th><th>보호유형</th><th>대상질환</th><th>발병일</th><th>입원기간</th></tr><tr><td>여성</td><td>21</td><td>의료급여1종</td><td>척수손상</td><td>2024.02.</td><td>2024.11 ~ 2025.02</td></tr></table></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부, 모, 여동생
■ 주보호자 : 모</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복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 있어 국가 지원을 받고 있음</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아파트 (E/V O)
■ 주거환경 : 현관, 화장실 입구 단차 있으나 이동에 불편함 없음</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가족과 분리된 독립적인 생활
■ (사)나행동 전환홈 이용
■ 진로 고민</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전환홈 퇴소 이후 자택
■ 치료계획 : 미정
■ 이동수단 : 대중교통(지하철)</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상담 : 사회사업팀, 재활코치팀
■ 연계 : (사)나행동 노운기념 전환홈</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사)나행동 전환홈 이용
■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첼로) 복학 및 전과 상담,
장애학생지원센터 연계하여 기숙사 및 학교 생활환경 파악
■ 대구 직업능력개발원 안내</td></tr>
</tabl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가족입니다.
02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6W) 유정옥 간호사



재활간호팀(5W) 신보민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손아연 간호사



갑상선유방팀 김서안 간호사



브랜딩실 권용협 실장



재활치료1팀 문원우 물리치료사



내과내시경팀 강지원 간호사

2025년 입학자녀 선물 나눔 (02.14)

해나행 가족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축하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이미용 서비스 (02.18 / 02.20)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84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2025년 제2탄

임신 & 육아 지원정책 Q & A

Q1.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이 확대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에서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지만, 육아휴직은 변동 없이 만 8세(초 2)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일('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인상은 '25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Q3. 육아휴직이 최대 1년6개월로 연장되었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간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Q4.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데, 직원의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A]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5.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기간 총1년(혹은 1년6개월)중에 분할해서 출산 전,후에 사용가능합니다.

Q6. 육아휴직을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직 게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반드시 신청서를 결재올려주셔야 합니다.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축하해주세요

2025년 해나행 정기승진 확정

1. 승진대상

■ 주무

- 재활의료 | 통합의료 ① 경력 7년차 (만 6년 이상 / 군가산 1년)
  ② 본원 2년이상 근무자
- 경영지원 | 재활복지 ① 10호봉 이상
  ② 본원 2년이상 근무자

■ 부파트장 : 직전 직책(주무)으로 3년이상 근무 (대상부서 : 재활간호팀 / 재활치료팀)

■ 파트장 : 직전 직책(부파트장)으로 3년이상 근무

■ 부팀장 : 직전 직책(파트장)으로 3년이상 근무 (대상부서 : 재활간호팀 / 재활치료팀)

■ 팀장 : 직전 직책(부팀장)으로 3년이상 근무

2. 승진심사 기준

■ 직무평가서 : 평가결과 'A'이상

■ 승진대상자 평가서 및 자기평가서 : 평가결과 '90점'이상

3. 승진전형 경과

■ 승진(안) 공고 : 2025년 1월 13일(월)

■ 평가서류 제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 역량검사 : 2025년 2월 7일(금)까지

■ 병원장님 면담(파트장이상) : 2025년 2월 14일(금)까지

■ 최종결정 : 2025년 2월 14일(금)

■ 인사발령 : 2025년 3월 1일(토)

4. 승진자

순번	성명	소속/직책	직급	
			발령 전	발령 후
1	윤선화	간호팀_5층 생활재활파트	팀원	주무
2	한정윤	간호팀_6층 생활재활파트	팀원	주무
3	김은희	간호팀_6층 생활재활파트	팀원	주무
4	최서윤	간호팀_8층 생활재활파트	팀원	주무
5	양지애	간호팀_외래재활파트	팀원	주무
6	차경인	재활치료1팀_뇌신경1파트	팀원	주무
7	김택호	재활치료1팀_뇌신경1파트	팀원	주무
8	최유현	재활치료1팀_뇌신경2파트	팀원	주무
9	이동환	재활치료1팀_뇌신경3파트	팀원	주무
10	이시영	재활치료1팀_뇌신경5파트	팀원	주무
11	백상훈	재활치료1팀_뇌신경5파트	팀원	주무
12	김영주	재활치료1팀_척추손상파트	팀원	주무
13	나기열	재활치료1팀_척추손상파트	팀원	주무
14	김동호	재활치료1팀_외래재활파트	팀원	주무
15	추진엽	재활치료2팀_뇌신경파트	팀원	주무
16	나원희	영상의학팀	팀원	주무
17	최지은	내과내시경팀	팀원	주무
18	김태일	원무팀	팀원	주무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2.12)

함께 맞이하는 정월대보름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에서



단 두 줄의 문장이 전해주는 위로와 희망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살아 있음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정월대보름 아침입니다.

풍요로움의 원점이 되는 첫 보름에,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위로와 희망을 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정월대보름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음식인
오곡밥에 복쌈(김), 부럼을 대신할 하루견과까지...
소소하지만 정감 있는 정월대보름 절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정감 있고 따뜻한 음식을 통해,
모든 가능성이 나에게 열려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길 바라며,

해나행 가족 모두가
오늘도 무엇이든 해내는 내가 되기를...
둥근 달님을 보면서 기원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비가 그치겠죠?ㅎㅎ)



당신이 느끼는 봄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새봄을 맞이하는 나만의 작은 의식.

우리들의 반복되는 일상속에 변함없이 변하는 게 있다면 바로 계절의 변화다. 물론 이 계절도 봄-여름-가을-겨울의 반복되는 변화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새 옷을 갈아입는다. 그 중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봄이지 않을까 싶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속에서 파란 새싹이 싱싱하게 고개를 내미는 순간, 겨울의 혹한을 이겨낸 버들강아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의 숨결소리, 살랑대는 바람과 따뜻한 햇살 등에서 봄을 느끼곤 한다.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 속 SNS에서 봄을 먼저 느낀다고들 한다. 친한 친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팔로워들까지 모두들 저마다의 일상에서 봄을 느끼고, 봄을 이야기 하고 있다. 화면 속 사진은 하나같이 전문사진 작가이며 프로 모델 빰친다. 온전한 봄소식을 알리는 배경을 바탕으로 사진 속 주인공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다. 어딘가 바라보는 장면으로 찰칵, 수줍게 고개를 숙이면서 찰칵, 뒤돌아 찰칵, 한쪽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자연스럽게 웃으며 찰칵, 그렇게 저마다의 각자 모습이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느낌으로 SNS를 장식한다. 그렇지 못하고 정면을 보고 웃으면 십중팔구 나와 같은 세대이다. SNS속에 봄이 왔다. 봄을 느낀다. 봄을 표현한다. 따로 똑.같.이.

봄이라는 계절은 유난히 사람을 설레게 한다. 도전하게 하고, 시작하게 한다. 그래서 '봄'이라는 단어는 꼭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행복한 미래, 꿈꾸는 희망, 성장한 모습 등을 비유해서 표현한다. 나 역시 매년 신정이나 구정보다는 봄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 무엇에 대한 꿈을 꾸며 도전했던 것 같다. 이미 날씨는 따뜻한 봄날인데, 먼 훗날 더 멋지게 성장한 또 하나의 봄날을 기다리며 말이다.

그럼 정말 내가 '앗~ 이제 진짜 봄이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니, 어렵지 않게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건 개나리, 진달래도 아니고 매화나 벚꽃도 아니었다. 바로 '냉이된장국'이다. 엄마표가 아닌 아침 일찍 직장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먹는 '냉이된장국'이다. 딱히 내가 냉이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직 건강히 살아계신 나의 어머님이 끓여준 기억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식당에서 봄이 오는 길목에 처음 접하는 '냉이된장국'을 먹으면 '아~ 봄이다.'라고 느낀다.

산과 들의 식물들이 초록으로 몸단장함을 시각적으로 느끼는 봄이 아닌, 숟가락 위에 오른 국물 한 모금에서 미각으로 느끼는 봄이다. 시각적 봄은 짧게 지나가거나 묻혔다면 미각적 봄은 혀끝을 통해 식도를 통과하고, 위벽을 적시며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 냉이를 직접 만져보지도 않았고, 본 기억도 잘 없는데 왜 이럴까? 오히려 봄에 올라오는 쑥, 그 쑥으로 끓인 국이라면 더 많이 먹어봤고, 더 많이 접해봤는데, 쑥의 향과는 또 다른 느낌의 냉이된장국이 내겐 봄의 시작이 되었다.

> 춘색이 완연한 봄입니다. 봄은 그 긴 인고의 동면에서 깨어나 울창한 여름의 성장을 거쳐 가을의 결실로 향하는 '출범'의 계절입니다. _신영복《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돌베개)

혹한 추위를 견뎌낸 고목 위에 살짝 고개를 내민 새순, 저마다 연한 꽃입술로 봄을 노래하고 있다. 유난히 (추위를 잘타는데 사무실까지 1층이어서 올 겨울은 더) 힘들었던 겨울의 계절을 가까스로 통과하고 봄을 앞두고 있는 요즘이다. 성장을 멈추고 뿌리에 양분을 모았던 식물처럼, 에너지를 모으며 겨울잠을 잤던 동물처럼, 우리는 무엇을 모으며 겨울을 버티며 봄을 맞이해야 하는지 생각이 깊어진다.

말할 수 있는 봄나물 하나쯤 품고 사는 것.
새봄을 맞이하는 나만의 작은 의식.
구내식당에서 냉이된장국을
간절히 기다려본다.

영양팀장님,
읽고 있지예?^^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5년 02월 28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